

-(으)려고 하다

의도·임박 — ~하려고 하다, 막 ~하려 하다

-(으)려고 뒤에 하다가 붙여 마무리한 형태입니다. 생겨나고 있는 의도나, 막 일어나려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

■ 결합 방법

어간 종류	형태	예
모음으로 끝남	-려고 하다	가다 → 가려고 해요
받침으로 끝남	-으려고 하다	먹다 → 먹으려고 해요
ㄹ로 끝남	-려고 하다	만들다 → 만들려고 해요
임박	통제할 수 없는 일	비가 오려고 해요
이루지 못한 의도	-(으)려고 했다	전화하려고 했는데
구어 축약	-(으)려구요	가려고요

■ 언제 쓰나요

결합은 기본 규칙을 따르고 ㄹ 어간은 짧은 형태를 씁니다: 만들다 → 만들려고 해요. 시제는 앞 동사가 아니라 항상 하다가 붙입니다.

주어가 사람이면 궁리 중인 계획을 나타냅니다: 주말에 부산에 가려고 해요. 이미 정해진 일을 알리는 -(으)ㄹ 거예요보다 부드러운 표현입니다.

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일에 쓰면 의도의 뜻은 사라지고 시점만 남아 ‘막 ~하려 한다’는 뜻이 됩니다: 비가 오려고 해요, 해가 지려고 해요.

과거형에는 특별한 뉘앙스가 있습니다. 이루어지지 못한 의도를 나타냅니다. 전화하려고 했는데 못 했어요 — 전화하려고 했지만 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.

■ 예문

- 1 주말에 부산에 가려고 해요.
- 2 이제 자려고 해요.
- 3 내년에 한국어 시험을 보려고 해요.
- 4 비가 오려고 하는데 우산 있어요?
- 5 전화하려고 했는데 너무 늦었어요.
- 6 저녁은 집에서 만들려고 해요.

■ 비교

-(으)ㄹ 거예요
-(으)ㄹ 거예요는 정해진 결정을 말하고, -(으)려고 하다는 형성 중인 결정을 말합니다. 이미 예약해 둔 일이라면 앞의 것이 자연스럽습니다.
부산에 갈 거예요. (이미 정해졌다) / 부산에 가려고 해요. (갈 생각이다)

-기로 하다
-기로 하다는 결정하는 순간을 나타내며, 다른 사람과 함께 정한 경우가 많습니다. -(으)려고 하다는 품고 있는 의도를 나타냅니다.
가려고 해요. (갈 생각이다) / 가기로 했어요. (가기로 정했다)

-(으)ㄹ까 하다
이보다 더 정해지지 않은 표현으로, 막연히 생각해 보는 단계입니다. 세 표현은 막연한 것에서 확정된 것까지 단계를 이룹니다.
갈까 해요. (갈까 싶다) → 가려고 해요. (갈 생각이다) → 갈 거예요. (간다)

■ 주의

- ✗ 저녁을 만들으려고 해요.
- 저녁을 만들려고 해요.
ㄹ로 끝나는 어간은 -(으)려고, -(으)려와 똑같이 짧은 형태를 씁니다.
- ✗ 어제 전화했으려고 했어요.
- 어제 전화하려고 했어요.
시제는 끝의 하다가 붙습니다. 앞 동사는 언제나 어간 그대로 둡니다.
- ✗ 어제 부산에 가려고 해요.
- 어제 부산에 가려고 했어요.
과거를 나타내는 시간 표현이 있으면 하라도 과거형이어야 합니다. 이때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도 함께 생깁니다.